

기후재난과 예술: 기후재난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예술가들

김향숙
미술사학자·홍익대학교 강사

2021년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전시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세 시대를 애도하기》는 환경 변화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미술적 반응과 대응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물음을 주고 있다. 이에 본 글은 미술가들의 기후재난에 대한 반응과 경고, 재난 이후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미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폭염, 가뭄, 홍수와 같은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와 산업기술의 발달로 과다한 탄소배출은 지구 온난화, 북극의 빙하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인류의 재난이 될 것임을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다.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 1907-1964)은 저서 『침묵의 봄』에서 더 이상 새가 울지 않는 숲을 통해, 사진작가 조지 오소디(George Osodi, 1974-)는 다국적 회사들의 오일(oil) 산업화가 생성한 아프리카의 재난을 사진으로 구성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것이라며, 벨처(Harald Welzer, 1958-)는 기후재난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기후재난 문제로 지구의 황폐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기후재난의 절대적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공통점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감과 기후재난의 문제가 단순히 단일국가의 기후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후재난을 주제로 작업하는 미술가들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재난 문제를 중재하는 대안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는 공동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철학자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는 환경문제를 언급하며 재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예술가의 방식에 가깝다고 언급했는데 현대 미술가들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기후재난을 주제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는지 그 대응전략을 고찰할 것이다.¹⁾

기후재난과 미술

기후재난에 대한 미술적 반응은 이미 각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의 달 착륙을 기점으로 급격히 많은 미술가들이 전통적인 미술관 공간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연에서 작업했으며 생태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데 기여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은 공생관계임을 나타내고자 했으나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1944-)의 〈이중부정〉(Double Negative)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보호를 위한 설치가 자연 파괴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사회학자 마르쿠제(Hebert Marcuse, 1928-1979)가 환경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저서로 출판하면서²⁾ 생태학에 대한 관심으로 보이츠(Joseph Beuys, 1921-1986)가 1982년 카셀 도쿠멘타(Kassel Dokumenta)에서 7000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사회적 조각’으로 인류의 환경문제를 예술로 끌어들이며 미술적 대응을 주도했다. 영국에서는 자연을 체험하며 작업하는 과정의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낸 롱(Richard Long, 1945-)에게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여할 정도로 자연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렇듯 전통적인 미술관으로부터 자연으로 나온 미술가들은 재난에 대한 미술적 반응을 표상하며 미술의 개념 전환을 시도했다.

1990년 세계화로 지구가 하나로 진행되고 있을 때 미술가들은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고, 체험을 주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기획자 부리오(Nicolas Bourriaud, 1965-)의 눈에 띄었고 그는 20세기 후반 현대미술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관계’라고 보았다. 그는 『관계의 미학』을 저술하면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참여를 통한 상호관계성이며 이러한 상호 주체성의 작업은 도시공간에서 완성되는데 설치미술가와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³⁾

기후재난의 문제를 도시공간에서 ‘관계’로 연계한 미술가는 하크(Hermann Josef Hack, 1956-)였다. 하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Tuvalu)가 기후 온난화로 침수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후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도시의 광장에서 퍼포먼스 〈global balance〉(2009)를 주도했다.

1] Felix Guattari, *Drei Oekologien*, Wien, 1994, P. 12-13.

2] Hebert Marcuse, *Die eindimensionale Mensch*, Darmstadt/Newwied, 1987, p.86.

3] 니콜라 부리오, 『관계의 미학』, 현자연 옮김, 미진사, 2011, p.7 & p.22-28.

그에게 필요한 도구는 수면측정기(Wasser Waagen) 하나였다. 퍼포먼스 참여자들은 손과 손에 수면측정기를 들고 연결하며 놀이처럼 즐기거나 그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난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⁴⁾ 하크는 미술관에서 관람자를 기다리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 직접 설득하여 수동적인 관람자를 능동적 참여자로 이끌며 관계의 변화를 미술적 '관계의 미학'으로 완성했다. 당시 수상이었던 슈뢰더(G. Schroeder)는 수면측정기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연대책임"이라는 문구를 쓰며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의 의미를 공개했다.

기후재난의 고통을 상호주체적 관계로 작업하는 엘리아슨(Olafur Eliasson, 1967-)은 2014년부터 <ice watch>를 시리즈로 공개했다. <ice watch>는 엘리아슨이 그린란드(Greenland)에서 직접 공수해온 얼음덩어리들을 세계 기후변화 대책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그 국가의 광장에 설치하는 것이다. 2019년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of Modern Art) 앞과 주변 광장의 이곳저곳에 설치한 얼음덩어리들은 스스로 녹으며 서서히 거품을 내고 있다. 엘리아슨은 관람자들에게 얼음을 직접 만져보고 입 맞추고 냄새도 맡으라고 격려하며, "기후재난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음에 귀를 대고 갑자기 그것이 미묘하게 갈라지는 소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는 소음은 10,000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던 압력 거품의 방출이기 때문입니다."⁵⁾라며, 참여하고 체험하여 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감각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보조 장치들 예컨대 조명이나 안개등 없이 오로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가 초기에 작업했던 <Beauty>(1993)에서는 인공무지개로, <기후프로젝트>에서는 인공 태양을 설치하며 관람자들의 사유를 이끌어냈다면 <ice watch>는 예술적 공감보다는 체험을 통한 인간적 정서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기후재난 프로젝트 가운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설치는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리투아니아의

오페라 <태양과 바다, 마리나>(Sun & Sea(Marina))이다.⁶⁾ <태양과 바다, 마리나>는 2017년 리투아니아 국립 미술관에서 초연되었는데 베니스에서는 실내에 인공해변을 만들어 24명의 공연자가 출연하고 있다. 그들은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며 일광욕을 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솔로나 그룹으로 하모니를 들려주기도 한다. 오페라 배우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범한 해변 풍경을 반영하고 있다. 관람자들은 발코니로 올라가 설치-오페라를 감상한다.

이 휴가철 퍼포먼스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으나 참여한 배우들의 휴대폰과 선크림을 비롯한 소지품들은 모두 산업화와 연관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재난의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전시를 위해 연기자들과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는 점에 대한 거센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베니스까지 오는 모든 공공교통수단에서는 대량의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므로 환경운동가들에게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예술 업계는 마치 탄소 배출 전시장과 유사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기후재난의 가장 큰 문제가 탄소 배출임이 알려졌을 때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스트리아 마르쿠스(Jeschaunig Marcus)의 <오아시스 No 8>(2016)는 현장에 있는 냉각 시스템에 폐열을 공급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건물의 빈 공간에 투명 자연 온실을 만드는 것으로 도시의 미개발 에너지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축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설치작업이다. 이 작품은 공공장소에서 시각 미술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및 건축의 성공적인 학제 간 연결을 나타낸 설치로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환경운동가들은 비엔날레와 박람회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모든 전시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지만, 곧 다시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이 가능하다.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술관들이 이 제안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2019년부터 그린 뉴딜정책 'Wir alle für 1.5°C' 에 따라 미술관 전시를 줄여 2030년까지 3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⁷⁾

4) 김향숙, "재난과 미술적 대응: 헤르만 조셉 하크(Hermann Josef Hack)의 기후난민 프로젝트", 한국미술이론학회, 2012/제14호 53-83, pp. 69-70 참고.

5) <https://www.dezeen.com/2018/12/12/ice-watch-olafur-eliasson-installation/>

6) [https://en.wikipedia.org/wiki/Sun_%26_Sea_\(Marina\)](https://en.wikipedia.org/wiki/Sun_%26_Sea_(Marina))

7) <https://www.monopol-magazin.de/monopol-talk-clubhouse-kunst-und-klimaschutz-was-sich-aendern-muss>

기후재난과 기후 전쟁

기후재난 문제가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진 정치사회와 세계화로 엮인 총체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학자는 헤럴드 벨처(Harald Welzer, 1958-)였다. 그는 저서 『기후전쟁』의 서문에서 미국에서 연구된 '국가 안보와 기후변화의 위기'와 독일정부가 발행한 '지구환경변화 학술자문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이 곧 안보정책"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기후변화가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현실에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⁸⁾

벨처는 지구 평균 기온이 2°C 혹은 4°C 올라갈 때 정작 기후 시스템 자체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으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인지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발생에 잠재된 폭력성과 연관되어 있다며 그 예로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Darfur) 지역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은 아랍계와 아프리카계의 인종 갈등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실은 기후변화에 의해 토양이 침식되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결정적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생태계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이웃과 충돌한 연쇄 반응의 결과라는 것이다.

벨처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후 기후 문제가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아닌 인종과 종교 그리고 자원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과관계로 얽혀있음을 난민의 이동을 통해 알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위험은 도미노의 원리에 의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며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기후재난과 난민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현재의 살인은 근원적으로 '생태학살'이라고 언급했다.⁹⁾ 그윈 다이어(Gwynne Dyer, 1943-)도 저서 『기후대전』에서 10-20년 내 기후변화로 인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¹⁰⁾

국제 이주기구(IOM)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며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웰즈(David Wallace-Wells)는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 경고 이후의 삶』을 통해 기후재난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가난한 나라와 국민들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난민으로 떠도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기후난민과 미술적 대응

오늘날 기후난민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지역의 문제도 아닌 전 세계 지구인의 문제라는 인식은 세계로 확장되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급작스러운 난민 증가가 기후재난과 연관이 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각 국가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극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기후난민의 생존 문제에 대응하는 생태건축가 빈센트 칼보(Vincent Callebaut, 1977-)는 특별히 기후난민을 위해 떠도는 생태도시(LilyPad, a floating ecopolis for climate refugees)(2010)를 비롯하여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건축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직 예술만이 기후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외치며 도시공간으로 나온 하크(Hack)는 기후난민을 위한 세 가지 미술적 대응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광장에 <난민캠프>를 설치한다. <난민캠프>는 그가 직접 작업한 수백 개로 이루어진 크고 작은 리사이클링(recycling art) 텐트로서 그 텐트에 쓰인 문구는 "여기는 난민촌이다. 점령되었다"이다. 문장은 간단하나 그 내용은 다가올 난민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미술적 대응의 표상이다. 그는 대중과 소통하며 이웃나라 프랑스를 비롯하여 그리스, 남미와 베이징 등 세계를 다니며 난민 구제의 긴급성을 "난민과 싸우지 말고 난민의 원인에 대해 싸우라"는 설치와 슬로건으로 알리고 있다.¹¹⁾ 하크가 끊임없이 설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는 '참여미술'은 예술적 성공과 실패에 무관하게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²⁾ 난민 구제를 위한 두 번째 대응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8) 하랄트 벨처, 『기후전쟁』, 윤종석 옮김, 영림카디널, 2010, p. 6.

9) 같은 책, p. 107.

10) 권 다이어, 『기후대전』,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1, p. 15.

11) <http://hermann-josef-hack.de/cms/>

12) Peter Bürger, *Theorie der Avantgarde*, Suhrkamp Verlag, 1974, pp. 180-212.

하크는 Global Brainstorming Project(GBP)의 창립자로서 G.B.P.는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연구원,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 이는 기후재난의 문제 해결에는 예술가와 참여자(관람자)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나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시스템의 구축이다.¹³⁾ G.B.P.는 <글로벌 스위치(global switch)>(일명 5분 소등)와 같은 글로벌 퍼포먼스에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으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세 번째 대응은 세계화 이후 굶주리고 있는 난민을 위한 빵을 직접 만들어 나누는 ‘퍼포먼스를 실행하고 있다. 그는 ‘미술 컬렉터들이여 그대들의 자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술작품의 가격은 오르고 있다. 빙하는 녹고 있다’ 등의 자본주의 슬로건을 통해 그가 의도하는 방향을 알리고 있는데, 하크의 대응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종교적 실천이다.¹⁴⁾

하크의 난민 프로젝트는 사회, 정치적 이슈를 포함하며 참여자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프로젝트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노마디즘(Nomadism) 미술의 선구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크는 비록 재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재난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¹⁵⁾ 하크는 미술가들이 난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구도 난민의 문제, 즉 현실적으로 그들의 식량과 건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결국 학살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이라고 설득한다.¹⁶⁾

난민 미술가와 미술관의 대응

스위스 유엔 난민 기구(UNHCR)는 2019년 ‘난민 여성과 함께하는 미술’(Art Stands with Refugee woman(2019)과 2020년 ‘난민 어린이와 함께 하는 미술’(Stands with Refugee Children)(2020)이라는 주제로 기후재난 난민을 비롯하여 세계의 고통받는 모든 난민에게 그들의 트라우마로 파괴된 정체성을 재건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술가이며 전시기획자인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 1956-)는 서문에서 “세계 난민의 절반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여전히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을 알려 난민 구제에 동참하기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시도했음을 알리고 있다.¹⁷⁾ 난민들의 작품은 ‘세계 난민의 날’을 기점으로 아트 바젤(Art Basel) 현대 미술 전시회에 선보였는데, 전시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무심한 일반인들에게 예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드리 카벨리우스(Odri Cabelius)의 사진은 스위스에 홀로 온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짧은 다큐영화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 - 목록’에서는 난민들이 무엇에 온 힘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의 목록을 보며 난민이 아닌 우리가 여행할 때의 목록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으며, 만약 도피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도 있다. 부슈라 칼리(Bouchra Khalili, 1975-)의 경우 난민들의 도피에 별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늘과 바다>(sea as sky)를 통해 그들이 겪는 힘든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난민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폭력적으로 추방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증가하는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아이디어도 다양해지는데 2020년 독일 함부르크의 ‘Hamburger Kunsthalle’미술관에서는 난민을 돕기 위한 특별한 로터리 전시를 구성했다.¹⁸⁾ 이 전시는 난민 구제에 있어 예술가들의 헌신이 돋보이는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예술가들은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덴마크의 올라퍼 엘리아슨(O. Eliason), 미국의 제니 홀저(J. Holzer), 독일의 안젤름 키퍼(A. Kiefer) 등을 비롯하여 100명의 세계적인 미술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이며 그들은 스케치나 작품을 후원했다. 작품들은 ‘HEART-100명의 예술가’라는 주제로 독일의 본(Bonn)과 함부르크(Hamburg), 베를린(Berlin)의 현대 미술관과 협력하여 2주 동안 순환적으로 전시되었다. 난민을 돕고자 하는 개인들은 40유로를 후원하고 전시가 끝난 후 추첨으로 그들의 작품 가운데 한 점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난민 돕기에 참여한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술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대적 과제인 기후난민에 대한 미술가들의 대응은 미술관

13) <http://hermann-josef-hack.de/cms/?cat=15>

14) 김향숙, 위의 논문, pp. 70-74 참조.

15) Hermann Josef Hack, “Globale Soziale Plastik”, in: Aktionsraum Kunst, 01, 2011, p. 12.

16) 김향숙, 위의 논문, pp. 70-74 참조.

17) <https://www.unhcr.org/dach/ch-de/aktuelles/art-stands-refugees/art-stands-with-refugees-en>

18) <https://www.hamburger-kunsthalle.de/heart-100-artist-1-mission>

밖 도시의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으로 인류 재난의 문제를 세계화시키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난민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법을 글로벌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알리고, 세계를 돌며 노마디즘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인 모두가 '잠재적 난민'임을 진정성 있게 인지하고 실천한다면 '푸른 구슬'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